

우리식 잣대로 우리식 이론 정립한다

‘한국적인 것’ 모색 위한 학문적 독립선언 담은 책들 독자들 주목 끌어

유홍준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비평사)를 펴낸 것은 지난 5월, 이제 갓 3개월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이 책은 각 서점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끼어 들 정도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이 급부상하게 된 데는 우선 시기적으로 휴가철이 맞물려 있어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문화예술답사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것을 알자’는 사회의식도 그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분석이다.

또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애정 어린 눈으로 국토와 역사를 겨냥한 작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미술사 서적들과 구분점을 갖고 있다. 일반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미술사 학자들의 전문용어 없이, 술하게 보여지는 감탄부호 없이 지식과 감성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한 저자의 글쓰기도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국토여행길의 길잡이로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자르고 재단하거나, 분석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우리 글쓰기의 한 모범으로 자리잡을 만하다고 평자들은 말한다.

W이론, 국제 경쟁시대에서 신바람 강조

우리 것에 대한 사회 저변에 깔린 의식을 대변하듯 학문에 있어서도 우리의 방법론을 강구해 그것으로 우리의 문화현실을 이야기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 경영분야의 혁신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이면우교수의 「W이론을 만들자」(지식산업사)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조

학문에 있어서 우리의 방법론을 강구해

그것으로 우리의 문화현실을

이야기하지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 경영분야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이면우교수의

「W이론을 만들자」(지식산업사)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그 바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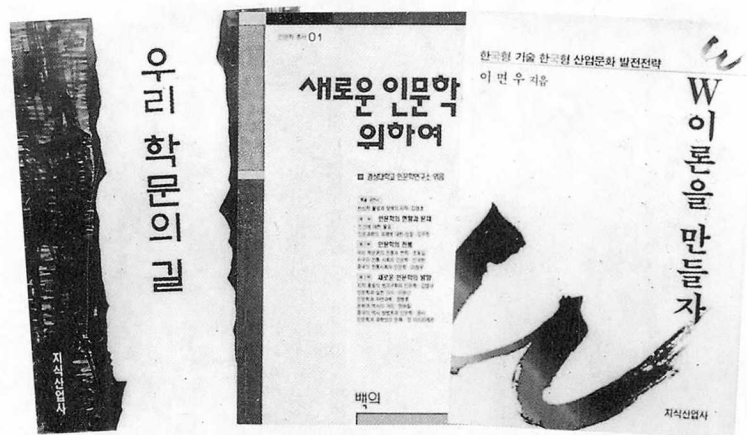
인문과학으로 불고 있는 실정이다.

학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우리의 방법론을 살펴본다.

동일교수의 「우리 학문의 길」(지식산업사)과 경상대 인문학연구소에서 엮은 「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백의)가 동시에 나와 폭넓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 학문 찾기’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W이론을 만들자」가 나오기 이전에도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은 지난해 4월 「제2의 독립운동론」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여기서 김장관은 “한 국가의 독립을 지키는 힘의 원천이 군사 경제 외교력에서 이제는 과학기술력으로 바뀌었으므로 우리만의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주권을 지키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핵심 첨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W이론을 만들자」는 김장관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다.



과학·경영분야 이외에 인문과학분야에서도 ‘우리의 방법론’ 찾기에 열중이다.

「W이론을 만들자」는 현학의 상황을 사면초가보다 더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과 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촌 경쟁시대에서 한국의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업과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혁신’만이 가능한데, 신기술의 수명이 3년이고 신제품 개발주기는 6개월 내지 1년이므로 끊임없는 기술혁신만이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길임을 주장한다. 즉 W이론은 국제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우리의 사상이며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인 것이다.

이교수가 말하는 W이론이란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일본의 첨단상품에 우리나라의 독창성을 가미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세상상품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인은 혁신능력이 탁월하고 평균화 욕구도 강하므로 조직체의 구성원, 특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공존공생의 정신으로 사력을 다할 때 신바람이 나고, 한국기업의 생산성은 세계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

우리의 철학, 방법론 찾아 나서

「우리 학문의 길」과 「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는 인문과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철학과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동일 교수는 “남들의 기존지식을 수입하는 데 급급해온 지금까지의 잘못을 청산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하면서 세계학문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시발점을 개혁의 시대인 바로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정신세계사의 돋보이는 책들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바바 하리 다스 지음/푸시화 옮김/4,000원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수광스러운 본질/최시림 옮김/3,500원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철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4,000원

파라독스 이습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습 우화/로버트 집러 지음/김정우 옮김/3,200원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뤄 등 중국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의 지음/이효림 역 옮김/3,500원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판·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신의 뜰에서 놀며(상·하)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장편소설/피터 테킨스 외/황정민 옮김/4,500원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16개국 공동체마을의 이념과 생활상/올리버 포피노 외/이천우 옮김/6,000원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 한 책/피터 토크스 외/황정민 옮김/7,500원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아트 T. 스포딩/정장영 옮김/7,000원

달마

라즈니쉬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강의, 해설한 달마어록/오쇼 라즈니쉬/이연화 옮김/7,500원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 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김종오 옮김/5,500원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4,500원

나를 점쳐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방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운명/다이어그램 그룹/정현숙 옮김/6,000원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제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빈 지음/3,500원

大東夷(전5권)

소설로 엮은 최초의 한민족 태고사, 민족의 자각을 드높인다/박문기 지음/각권 4,000원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8,500원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겨진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의 문화/권태훈 지음/9,000원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옮 김수/정재승 편저/6,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시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

학문이 제대로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황폐화 되는 과정과 함께 학문의 재도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교수는 학문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고 있다. 그 답으로 그는 학문의 정의를 '진실을 탐구하는 행위' '논리로 이루어진 것' '실천의 지침인 이론을 마련하는 것' '독백이 아니라 다자간의 대화'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학문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특수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들어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지눌의 「수심결」, 정도전의 「불씨잡변」, 임성주의 「녹려잡지」, 최한기의 「추측론」 등은 이치의 근본에 대한 논자의 주장을 조리를 갖추어 전개한 글의 모범으로서, 모두 우리 학문의 훌륭한 철학을 갖춘 것이므로 이를 현대에 계승 발전시켜 학문의 방법론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와 중국, 일본의 학문을 우리의 것과 비교 평가하면서 조교수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하나로 꿰면서 각 영역의 독자성이 살아나게 하는 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분석과 종합, 객관적인 것과 종합적인 것 등을 명확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 조교수가 주장하는 학문총괄론의 핵심 내용이다.

「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에 글을 기고한 학자들도 조동일교수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학문의 나아갈 바를 조명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사회변혁에 참여한 학문들의 패권주의화 현상과 그에 대응하는 반명제로서의 다원주의적 징후들을 점검하고, 서양학 중심의 우리

인문학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 씌어졌으며, 인간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우리학문론의 전통과 변혁, 서구와 중국의 전통사회와 인문학을 살펴 보면서 그 장단점과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논자들은 한국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것을 도출하고 그 반대로 세계적인 것에서 또한 한국적인 것을 가늠해 우리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우리 인문학의 중심이 바로 잡힐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개혁 통해 이론의 식민지 탈피

이러한 책 이외에도 서울대 '학문체계연구팀'이 대학교육의 목표와 학문체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연구 발표한 1차 보고서도 우리 학문의 오류를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 「동양의 학문체계와 그 이념」을 쓴 이성규교수는 우리의 전통학문은 이미 學이 아니라 史로서 역사학의 연구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재야 학자들의 秘傳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지식인 대다수가 서구 이론만을 수입하는데 급급했으며 그 결과 "한국학계는 서양학계의 지부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거론된 책의 저자들이나 여러 뜻 있는 학자들은 이러한 악순환의 해결을 위해 대학을 비롯한 교육의 재정립을 그 해답으로 찾고 있다. 즉 대학이나 여타 교육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기본 이념과 학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수 기자

표지의 말

여름철 책읽기의 서늘한 아름다움

서울 한복판서 발견하는 썩 보기 좋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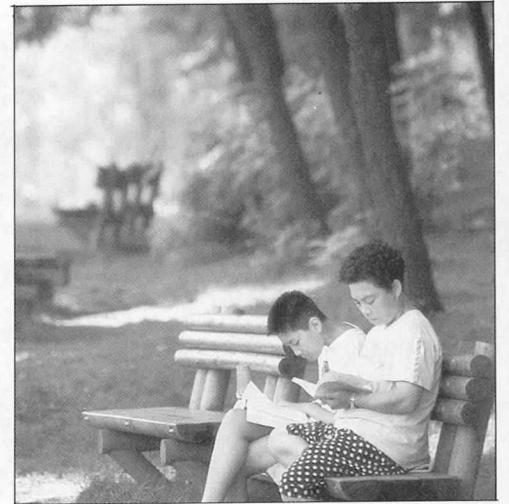
책읽기는 결코 '제일 좋은 일'이 못된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그 다음 좋은 일'이거나 '덜 나쁜 일'이기 십상이다. 피서나 바캉스, 산과 바다 같은 온갖 달콤한 유혹들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여름철엔 더욱 그렇다. 원두막 그늘에 배 깔고 엎드려 책읽는 맛이, 숲속 시냇물에 발 담그고 솔바람에 책장 넘기는 운치니들 하지만, 사실상 그런 류의 책읽기란 그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일에 지치고 삶에 지친 대다수 보통사람들에게 그것은, 이를테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추억이거나 이를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꿈이거나다.

그러나 때론 추억과 꿈이 현실로 실현되기도 한다. 얼마전 새롭게 단장돼 선을 보인 서울 용산시민공원이 바로 그 꿈과 추억들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인구 1천만의 대도시 한복판에 樹林의 섬처럼 떠 있는 그곳에 가면, 책읽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 수 있는가를 누구든 실감하게 된다.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 여기저기서 盛夏의 땀방울도 아랑곳 않고 책을 펴든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후미진 숲속 그늘 아래 통나무 벤치에 앉아 독서삼매에 빠진 祖孫의 정겨운 풍경도 눈에 띈다.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떠나고 싶으면 떠



나는, 머리가 아닌 몸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무위도식이 여름철엔 오히려 더 체계적이라고 들 한다. 하지만, 그 무위도식에조차 지치거나, 짝은 있는데 마땅히 다른 할 일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책을 드는 게 좋다.

굳이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 한권의 책을 들고 용산시민공원 같은 데를 하릴없이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도시의 먼지에 찌든 우리들 눈을 위한 淸福이 될 수 있다.

여름철 책읽기, 그 썩 보기 좋은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스키장 살인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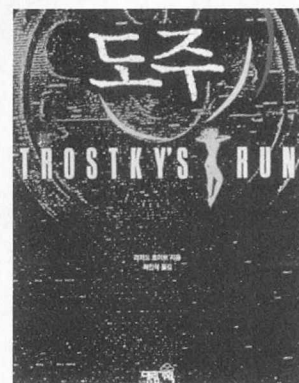


눈 덮인 스키장에서 발생한 충격의 살인사건!

심장까지 얼어붙는 공포의 미스터리!
위기의 중년부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미모의 20대 여인 채은경의 욕망!!

질투와 욕망은 끝내 파멸을 불러오고...

신국판 / 313쪽 / 값 5,000원



신국판 / 394쪽 / 5,800원

리처드 호이트 지음 / 최인석 옮김

지구 평화의 최후의 보루는
파멸, 그것이였다.
장미빛 숨결로 내려앉은
백악관의 위기.

— 이소설을 당신의 도서목록
최고의 순위에 올려놓으십시오.

— 뉴욕타임즈誌 —

대림기획
도서출판

서울 중구 을지로 37가 286
TEL. 268-4902. FAX. 277-6946